광주 고교 학력 '公低私高' 심각… 상위 20위 공립 두곳뿐

〈광주과학고, 상일여고〉

■ 2012 고2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립 대부분 40위권 이하

광주지역 국·공립과 사립의 학력 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저사고(公低私高)' 현상이 뚜렷했다. 상위 20개교 중 공립은 광주과학고와 상일여고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18곳은 사립이었다.

이는 2012학년도 수능 언어·수학·외국어 3개 영역의 평균 등급 7등급 이하 인원이 적은 학교에서도 동일했다.

4일 교육업체 '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1735개 고등학교의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과학고·숭덕고·전남과학고·전남외국어고·능주고 등 5개 고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100%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들 학교는 재학생 전원이 보통학력 이상으로 학업이 극히 부진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의미다.

광주지역은 학력 수준이 공립보다 사립이 월등했다.

총 54개 고교 중 상위 20위권에 포함된 공립은 광주과학고와 상일여고 두 뿐이다. 이들 학교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공립고로 학생 선발권이 부여된 곳이다. 학생 선발권 없이 추첨 배정하는 일명 '뺑뺑이'로 불리는 일반고에서 공립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최하위권인 40위권 밖에는 14개교 중 11곳이 공립이었다.

국·공립 고교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79.06%로, 사립 87.07%보다 8.01%포인트 낮았다. 그만큼 사립과 공립의 학력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일반고에서는 여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상위 10개 고교 가운데 절반이 여고였다. 상일여고·대광여고·대성여고·동신여고·동아여고 등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내신관리를 꼼꼼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녀공학은 4곳이었고, 남고는 2곳에 불과했다.

'공저사고'와 '여고강세' 현상은 수능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2012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언어·수학·외국어 3개 영역의 평균 등급 7등급 이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숭덕고가 1.6%로 가장 적었다. 이는 숭덕고 학생 100명이 수능을 봤다면 이 중 1.6명이 7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대광여고(5.0%), 동아여고(5.0%), 대동고(5.8%), 광덕고(6.7%), 동신여고(6.7%), 대성여고(6.8%), 수피아여고(7.0%), 설월여고(7.1%), 서석고(7.2%)가 7등급 이하 인원이 적은 학교 순이다.

전남지역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자공고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일반고에서는 화순능주고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담양창평고(전국 57위)·목포 홍일고(132)·장성고(158)·여수여고(212)·여수 한영고(254)·목포 영흥고(261)·여수 여천고(269) 등이 전국 300위권에 포함됐다.

전남은 상위 20위권에 공립(9개교)과 사립(11개교)의 고르게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나주와 여수가 각각 3곳, 목포·함평이 각각 2곳씩 진출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광주의 경우 공립과 사립의 성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립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립의 학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2년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상위 20위

전국순위	시도순위	시군구	학교명	설립구분	남녀	학교유형	보통학력이상비율(%)
1	1	북구	광주과학고	공립	공학	과학고	100.0
1	1	광산구	숭덕고	사립	공학	자율형사립고	100.0
63	3	남구	송원고	사립	공학	자율형사립고	99.6
99	4	서구	상일여고	공립	여자	자율형공립고	99.2
122	5	남구	대광여고	사립	여자	일반고	98.8
225	6	서구	광주대동고	사립	남자	일반고	97.0
241	7	남구	대성여고	사립	여자	일반고	96.6
246	8	북구	광주숭일고	사립	공학	일반고	96.5
264	9	북구	광주동신여고	사립	여자	일반고	96.2
305	10	남구	동아여고	사립	여자	일반고	95.4
305	10	남구	광주석산고	사립	남자	일반고	95.4
314	12	광산구	보문고	사립	공학	자율형사립고	95.3
318	13	북구	고려고	사립	남자	일반고	95.2
342	14	북구	서강고	사립	공학	일반고	94.9
353	15	서구	광주서석고	사립	남자	일반고	94.7
368	16	서구	광덕고	사립	남자	일반고	94.4
375	17	남구	문성고	사립	남자	일반고	94.3
387	18	북구	광주중앙여고	사립	여자	일반고	94.1
387	18	북구	국제고	사립	공학	일반고	94.1
400	20	동구	조대여고	사립	여자	일반고	93.9

〈자료:하늘교육〉

■2012년 전남지역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상위 20위

전국순위	시도순위	시군구	학교명	설립구분	남녀	학교유형	보통학력이상비율(%)
1	1	나주	전남과학고	공립	공학	과학고	100.0
1	1	나주	전남외국어고	공립	공학	외국어고	100.0
1	1	화순	능주고	사립	공학	일반고	100.0
57	4	담양	창평고	사립	공학	일반고	99.7
132	5	목포	목포홍일고	사립	남자	일반고	98.6
158	6	장성	장성고	사립	공학	일반고	98.1
199	7	광양	광양제철고	사립	공학	자율형사립고	97.4
212	8	여수	여수여고	공립	여자	일반고	97.2
254	9	여수	한영고	사립	남자	일반고	96.4
261	10	목포	영흥고	사립	공학	일반고	96.3
269	11	여수	여천고	공립	남자	일반고	96.1
274	12	영광	해룡고	사립	공학	과학중점학교	96.0
286	13	무안	남악고	공립	공학	자율형공립고	95.8
305	14	함평	학다리고	사립	공학	일반고	95.4
318	15	함평	함평고	사립	공학	일반고	95.2
419	16	강진	강진고	공립	공학	일반고	93.5
427	17	나주	나주고	공립	공학	자율형공립고	93.3
464	18	해남	해남고	공립	공학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92.4
476	19	영암	영암고	공립	남자	일반고	92.2
481	20	순천	순천효천고	사립	공학	일반고	92.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광주시 북구 특별방역반이 4일 광주시 북구 지야동 한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북구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특별방역반을 꾸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허가 '용역' 동원 유치권 행사

순천경찰, 건축주 등 27명 무더기 검거

유치권 다툼이 있는 건설현장에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시킨 건축주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4일 건축주 김모(여·46)씨를 무허가 경비업법 교사 혐의로, 이모(30)씨 등 용역업체 직원 26명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5시30분께 순천시 해룡면 B마트 건설현장에 이씨 등을 보내 유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날 김씨 지시를 받은 뒤 B건설현장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앞서 유치권을 행사해오던 시공사 측 직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다.

이씨 등은 전날 김씨 지인의 연락을 받고 서울·충남 천안·대구 등지에서 내려왔으며, 이들은 김씨로부터 일당 5만~1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엔 유치권을 행사하던 시공사 측 직원 2명이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과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측은 김씨가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시공사 측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무허가 경비업체 직원임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용접기 이용 인형자판기 털어

광주광산경찰은 4일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경품·인형 자판기를 턴 전직 용접공 조모(25·서구 쌍촌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월곡동 A치킨집 앞에 설치된 경품 자판기 자물쇠를 산소용접기로 부순 뒤, 현금 12만 원을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광주·목포·장성·화순에서 65회에 걸쳐 현금 15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

주인 목걸이 가져간 도우미 넷 덜미

쌍나팔

○…팁 분배 문제로 유흥업소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주인의 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여성 도우미 4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여·49)씨 등 여성도우미 4명은 지난 2월 27일 새벽 0시40분께 남구 월산동 한 유흥주점에서 주인 김모(여·53)씨와 노래방기기에 붙어있던 손님의 팁 5만 원 소유권(?)을 놓고 다투던 중 주인 금목걸이를 훔쳐갔다는 것.

○…박씨는 금목걸이를 빈 캔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전당포에서 현금 200만원으로 바꿨는데, 경찰에서 "주인이 괘씸해서 바꾼 돈을 동료와 50만 원씩 나눠 가졌다"고 진술.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檢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봐주기' 의혹

윤씨 피소 3건 모두 무혐의

고위 공직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10년 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H상가의 개발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2010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해 작성한 수사사무관의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담당 검사실에서 수사후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니 즉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별도 의견 없이 송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연합뉴스

좀도둑된 '大盜' 조세형, 빌라서 귀금속 훔치다 덜미

'대도(大盜)' 조세형(75·특수절도 등 10범)이 70대 나이에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은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조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1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침입, 고급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3000만~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3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만년필을 들고 맞서려 했으나 권총을 든 경찰을 보고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